



# 젊은 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 보니  
 어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로  
 떠나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 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가수 이상은이 스물세 살에 부른 노래 “언젠가는”의 가사이다. 학창 시절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종종 열창하고는 했었는데 요즘 다시 들으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그때 나는 분명 젊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 젊음을 추억하며 조금 쓸쓸해지는 기분이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보다. 성당 청년회에서 라스베이거스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차 몇 대에 삼삼오오 나눠 타고 신이 나서 출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후에 도착해서 이 호텔 저 호텔 한참을 걸어서 구경하다가 한밤중이 다 되어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에서 꽤 떨어진 곳으로 호텔이라기보다는 모텔급의 명칭만 호텔이었다. 입구에 들어섰는데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용건이 있으면 벨을 누르라는 작은 사인이 붙어있었다. 벨

써 20년도 지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벨을 누른 후 한참 만에 누군가 나왔고 한동안 대화가 오고 갔다. 나는 저만치 서있어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호텔 예약을 담당했던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것만큼은 정확히 기억한다.

결국 우리는 그날 그 호텔뿐 아니라 어떤 호텔에서도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어찌다가 그런 결론이 나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밤을 새우기로 했고 정말 한숨도 자지 않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정말 라스베이거스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호텔을 모두 두발로 걸어내 기억에 나는 통굽구두를 신고 다녔음) 구경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다. 지금이라면 뜬눈으로 밖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 자체가 엄두도 안 날 것이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불편할 텐데 스무 살이었던 나에게 그런 것은 걱정거리에 속하지도 않았다. “힘들지만 괜찮아” 가 아니라 그런 것은 내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스무 살엔 그렇게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으니까.....

나는 MBTI 성격 검사 결과 대한민국 3%라는 ESFP, 혈액형은 O형으로 타고나길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이지만 성격도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는지 요즘에는 무엇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살피고 재야 한다. 한마디로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져 버렸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오만가지들 다 따지다 보면 결국 “포기” 라는 출구를 찾고 만다. 그래서 안되고, 저

래서 안되고.....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술만 늘어가고 있다. 젊은 날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는 특전사 구호처럼 살았건만 언제부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모드로 쉽게 생각을 접어버리는 나 자신이 안타깝다.

그래, 가끔은 무모해도 용감했고 고생마저 즐거웠던 푸르게 젊은 날이 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오늘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이다. 노래 가사처럼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몰랐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젊음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순수했던 사랑은 얼마나 고귀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인생의 타이밍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우리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이 모든 것들을 뒤늦게 알아버리지만 그래도 먼 훗날 언젠가는 오늘 이 순간마저도 그리워지지 않겠는가?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 오더니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걷히고 하얀 뭉게구름이 동화책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아름다움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일반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에나파크 타운홈 699천 방3 화3 1,652sqft  
 2016년 지은 깔끔하고 안전한 단지 안에 있는 편리한 교통, 3car garage, Fullerton high 학군



가격 착한 부에나파크 타운홈 495천 방3 화3 1,200sqft  
 2006년 투자라도 너무 좋은 살기 편리한 주위 환경 한인 상권 가까운곳 위치 풀러튼학군



풀러튼 단층집 65만불 방3 화2 13,000sqft 인기매물  
 아주 예쁘고 마당-방 아주 넓은 잘 관리된 집 포텐셜 많은 싱글홈 대지 6,200sqft, Turn key



풀러튼 단층집 70만불 방4 화3 1,428sqft cul-de-sac  
 보시면 반하실 너무 예쁜 집, 대지 6,600sqft 최신 업그레이드/리모델링 풀러튼 최고 초중고 학군



부에나파크 싱글 홈 695천 방3 화3 1,600sqft  
 집전체 마루, 최신식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마친집 써니힐스 고등학교, meadow brook community



부에나파크 싱글홈 689천 방3 화2 1,100sqft  
 대지 7,000sqft 큰 보너스 룸, 오피스룸 초등학교 도보거리, 인기매물 포텐셜 있는 집



부에나파크 타운홈 648천 방3 화3 1,560sqft  
 게이트 단지, 2009년 멋진 조경, 확트인 오픈 플로어 플랜 디자이너 감각의 인테리어 편리한 교통, founders walk



브레아 55+ 시니어 단지 분양 단층 구조  
 \$600,000부터 55+ Age 2021년 완공 1,389 to 1,726sqft 방2-3개부터 + Den 화2

<b>오렌지 싱글홈 렌트</b>	<b>풀러튼 타운홈 렌트</b>
방 6개 화 3개 넓고 멋진 홈 3월 입주 가능	방3 화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b>\$3,800</b>	<b>\$3,150</b>
<b>사업체 매매</b>	<b>뉴포트비치 상가 리스</b>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손수의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피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변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펠리 등 발보아 섬 근처 *비즈니스 대박 포텐셜 지리 *아주 좋은 리스 조건

##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